

보도시점	보도자료 배포 후 즉시		
담당부서	전략기획팀	담당자	여은정
이메일	ej_yeo@koreafilm.or.kr	연락처	02-3153-2064

보 도 자 료

한국영상자료원, 스크린쿼터 사수운동 '영상 컬렉션' 공개

11월 28일,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상자료 기증 감사패 증정식' 개최
 양기환 이사장, 스크린쿼터 사수운동 관련 기록물 1만여 점 기증
 기증자료 중 해제·선별된 영상 78편 KMDb VOD 무료 공개



▲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영상자료 기증 감사패 증정식' 사진
 (왼쪽부터) 한국영상자료원 김홍준 원장, 사단법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이사장

한국영상자료원(원장 김홍준, 이하 '영상자료원')은 11월 28일 열린 기증식을 통해 사단법인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이사장으로부터 '스크린쿼터 사수운동' 관련 기록물을 정식 기증받았다. 이번 기증 자료는 1990~2000년대 스크린쿼터 축소 논의가 본격화된 시기를 중심으로, 영화계와 시민사회가 한국영화의 상영 기회를 지키기 위해 진행한 활동을 기록한 현장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 영화운동사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스크린쿼터 기록 자료의 범위와 의미

기증자 양기환 이사장은 1994년부터 스크린쿼터 감시단과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며 현장 기록을 체계적으로 남긴 인물이다. 이번 기증 자료는 스크린쿼터 사수운동과 관련한 주요 집회, 기자회견, 영화인 인터뷰, 현장 기록영상, 홍보용 편집본, 방송 프로그램 녹화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당시 영화계가 국제통상 환경 변화와 제도 축소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전개한 움직임을 폭넓게 담고 있다. 스크

린쿼터 제도는 1966년 도입된 한국영화 보호 정책으로, 극장이 연간 일정 기간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도록 규정했으며 1990~2000년대에는 이를 둘러싸고 정부, 영화계, 미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문화정책의 주요 논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집된 이번 영상자료는 제도 변화와 사회적 논의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사료로 의미를 가진다.

□ 수집 경로 및 규모

영상자료원은 2023년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이사장과의 협의를 통해 기증 절차를 진행했으며, 자료 확인과 분류 과정을 거쳐 약 1만여 점 규모의 기록물을 인수했다. 이번 기증 자료는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의 흐름과 현장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대한 컬렉션으로, △당시 국내외 단체의 지지 서신, 스크린쿼터 문화연대 홍보팀이 생산한 보도자료, 해외 단체 방문 발제문 등 문헌자료 2,000여 점 △명동성당 영화인 가두시위 등 주요 활동을 담은 디지털 이미지 및 스틸 필름 등 시각자료 8,000여 점 △집회·기자회견·인터뷰·현장 기록 등 시청각자료 200여 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영상자료 227점이 우선 정리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이번 기증은 개인이 장기간 보관해 온 기록이 공공 아카이브로 이전된 사례로,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의 전개 과정과 역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스크린쿼터 사수운동 영상 컬렉션' 공개

영상자료원은 이번 기증과 함께 '스크린쿼터 사수운동 영상 컬렉션'을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에 공개한다. 컬렉션에는 기증자료 227점의 세부 정보가 정리되어 있으며, 이 중 공개 가능한 78점은 VOD로 서비스된다(영상도서관 내에서만 서비스되는 3점 포함). 또한 영상자료의 촬영 시기, 맥락, 운동 전개 과정 등을 정리한 자료집(PDF)이 함께 제공되어 연구자와 이용자들이 자료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해당 컬렉션은 11월 28일부터 KMDB 기록영상 컬렉션 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영상자료원은 2022년부터 1980년대 이후 영화운동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연구 기반을 마련해 왔다. 특히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은 국제무역 질서 변화, 문화주권 논쟁, 반(反) WTO 연대 등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맞물린 주제임에도 자료 정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분야로, 영상자료원은 2022년 사진·포스터·간행물 등을 정리한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 공개에 이어 이번 영상 컬렉션을 통해 관련 연구의 범위를 실제 현장 기록까지 확장시키게 되었다.

영상자료원은 스크린쿼터 사수운동 자료의 본격적인 정리·공개를 통해 영화운동사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22년 사진·포스터·간행물 등을 정리해 공개한 『영화시장 개방과 스크린쿼터』에 이어 이번 영상 컬렉션을 추가로 공개함으로써, 스크린쿼터 사수운동의 기록을 텍스트와 영상 양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하게 되었다. 영상자료원은 앞으로도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지속하며 한국영화사의 주요 기록을 공공 아카이브로서 안정적으로 보존·제공할 계획이다.

▶ 컬렉션 사이트 링크 (11. 28. 공개)

<https://www.kmdb.or.kr/collectionlist/detail/Album?upperColId=82&idx=all>

[참고자료] 컬렉션 수록 영상 주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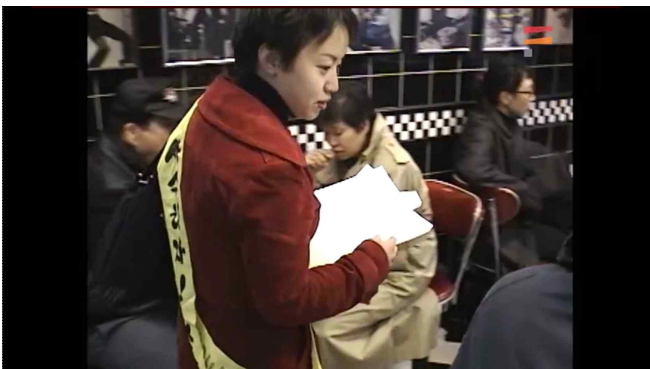
①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1998. 12. 1. 광화문빌딩 앞)



②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1998. 12. 1. 명동성당 앞)



③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1998. 12. 2. 명동성당 앞 농성 장면)



④ '한국영화 죽이기 음모 규탄대회'(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1998. 12. 3. 이해은 배우가 명동 버거킹에 들어가 집회 전단지 배포하는 모습)



⑤ <위험한 정사, vol 2004>(이훈규 감독, 2005)의 한 장면. 한국영화 스크린쿼터 축소 압력의 진원지로 미국 영화 관련 이익단체를 지목하고 있음.



⑥ 2006년 2월 4일부터 146일간 진행된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릴레이 시위 중, 최민식 배우가 2004년에 받은 훈장을 반납하기 전 소견을 발표하는 모습(2006. 2. 7.)



⑦ 제3차 국제 문화전문가 단체회의(CCD) 서울총회, 문소리 배우의 개회사 장면(2004. 6. 1.). CCD는 문화예술을 자유 무역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을 막고 문화다양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국제연대기구로, 90여 개국 600여 전문단체들로 구성되었음.



⑧ '문화인 연대 '98' (1998. 12. 11. 동송홀, 스크린쿼터 사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주최)에서 공연 중인 자우림